

# 목포 '드림 스타트' 사업 올해도 힘차게 출발

저소득층 아동 맞춤형 지원  
40여종 서비스 제공 확정  
'뮤직 복싱' 등 운동치료 인기

서비스전문요원 부족하고  
중학 진학시 혜택 중단 문제  
연계 교육 등 대책 마련 필요



## 아이들이 마음껏 꿈 펼치게



아동 권리 교육



119안전체험 교육



꿈을 설계하는 희망경제교육

목포시가 '환경은 열악해도 교육은 공평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저소득층 아동들의 꿈을 키우는 '드림 스타트'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드림스타트는 학업 교육보다는 현장탐방과 예체능 교실 등 취약계층 아동의 잠재 능력개발 및 안정적인 정서개발 등에 초점을 맞춰 빈곤의 대물림을 막는 능동적 복지사업이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상동을 시작으로 현재 23개 동(洞)으로 확대해 2013년 519명, 2014년 530명의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 사례관리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대상자별로는 만 7~9세 아동들이 309명으로 가장 많다.

목포시 드림스타트 사업은 규모나 프로그램 운영 면에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만큼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

다. 하지만 통합 서비스전문요원 1인당 관리 대상자가 너무 많은 등 보완이 필요하다. 이는 지적이다.

◇목포 드림스타트 현주소=시 여성가족과는 최근 3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가족·부모 교육 등 아동발달 영역별로 40여종의 아동 통합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종합 계획에는 아동과 가족의 신체·정서적 건강발달 증진을 위한 건강프로그램을 비롯해 아동 권리·학대 및 성폭력 예방·안전 교육 등 가족 역량 강화와 심리 정서 치료 프로그램이 다수 포함됐다.

또 42개 지역 아동센터를 비롯해 건강가정 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청소년 상담·문화센터, 미항주거 복지센터 등

20여 곳의 협력기관과 25곳의 복지기관과 참여해 다양한 민간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는 40여종의 프로그램 가운데 건강과 정서 부문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들 가운데 운동 치료요법인 '뮤직 복싱'과 유아체육 프로그램인 '트리트니'의 인기가 높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들을 대상으로 '가정 역량교육'도 병행한다. 신뢰를 돈독히 하는 생활 태도, 원활한 소통 방법, 마음을 여는 좋은 언어 사용 요령 등 자녀들과의 공감 능력이 향상돼 가족관계 개선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

◇담당 5명이 1인당 100명 아동 돌봐=드림스타트 효과는 좋지만 관리 대상자가 너무 많다는 게 전문요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보전복지부는 종사자 1인당 사례관리

서비스 대상자 수를 60~80명으로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목포시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5명이 1인당 100명이 넘는 아동들을 돌보고 있는 실정이다.

또 중학교 진학과 동시에 모든 혜택이 끊겨 사춘기를 맞은 이들을 전문적으로 돌봐줄 연계기관이 없어 애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정책적으로 해결돼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목포시 김황용 여성가족과장은 "열악한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희망의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역자원과 기관의 참여를 유도해 아동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아동들이 경제적 이유로 학습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맞춤형 학습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임영준·고규식기자 lyc@

## 목포 세계 마당페스티벌 2년연속 문광부 평가 최우수

올 축제 8월27일~30일 개최

'목포 세계 마당페스티벌'(MIMAF)이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사업'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최우수 대표공연 예술축제에 선정

됐다"고 29일 밝혔다.

세계 마당페스티벌 추진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사업'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최우수 대표공연 예술축제에 선정

됐다"고 29일 밝혔다. 손재오 예술감독은 문광부의 A등급 최우수 평가결과에 대해 "최우수 대표공연 예술제 선정 쾌거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고 15년이라는 오랜 시간에 걸쳐 숙성된 결과"라며 "앞으로 우리의 '마당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호로 삼고 시민과 관광객, 세계인들에게 울림

을 줄 수 있는 감동의 축제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하는 목포 세계 마당페스티벌은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목포 원도심 차안다니는 거리 일대와 근대문화 역사거리 등지에서 펼쳐진다.

/목포=임영준기자 lyc@



목포 기독교병원 관계자들이 최근 '건강증진센터'와 '소화기 내시경센터' 확장 오픈식을 갖고 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 목포 기독교병원 건강증진센터 전남 서남권 최고 검진센터로

'소화기 내시경센터' 확장 오픈

목포 기독교병원 건강증진센터가 목포를 비롯한 서남권 최대형 검진센터로 거듭났다.

목포 기독교병원은 최근 '건강증진센터'와 '소화기 내시경센터' 확장 오픈식을 갖고 서남권 지역민들을 위한 본격적인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 업무에 들어갔다.

목포 기독교병원은 건강증진센터 내에 동맥경화 검사실과 호흡기검사실, 청력검사실, 골다공증 검사실 등 안전하고 질 높은 검진을 위해 별도의 질환별 검사실을 설치했다.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검진장비를 도입해 정확하고 다양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 시스템을 구축했다.

건강증진센터는 확인화된 건강진단에서 벗어나 전담의사와 1:1 개별상담을 통해 개인의 건강상태 위험요인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까지 검진설계를 제공해 지역주민은 물론 사업장 근로자들까지 건강관리 및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목포 기독교병원은 소화기 내

시경센터를 확장했다.

소화기 내시경센터는 일본 올림푸스사 최첨단 내시경시스템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승인을 획득한 '협대역 광내시경'(NBI) 등 최첨단 내시경장비를 갖췄다. 특히 숙련된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내시경학회 이수를 마친 경력 간호사에 의해 전문화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목포 기독교병원 관계자는 "건강증진센터와 소화기내시경센터 확장에 따른 최신허 검진장비 업그레이드와 다양한 선택 검진항목을 통해 대학병원을 가지 않고도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어 지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한 단계 높은 검진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목포 기독교병원은 지난 2013년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에서 호남권에서 가장 우수한 A 등급을 획득한바 있다. 올해도 현대 삼호중공업과 특수건강진단 지정병원을 체결하는 등 특수건강진단 업무의 시스템 개선을 통해 신뢰받는 건강증진센터로 평가받고 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 목포 농업지원센터 17년만에 부활...6월중 개소

목포시 농업 지원센터(옛 농촌지도소)가 17년 만에 부활된다.

목포시는 도시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삼향동 주민센터 2층에 농업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6월중 개소식을 갖는다. 17년 만에 부활하는 농업 지원센터는 3명이 근무하고, 맞춤형 실용기술 보급과 소득창출형 전문농업인 육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는 지난 1998년 영농기술과 방법을 보급하는 농촌지도소를 운영하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농토와 농업인구 감소에 행정조직 개편을 거쳐 폐쇄했다.

박홍률 시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과 농업인 교육, 우량종자 공급 등의 업무를 분청에서 맡다 보니 도시농업의 무한경쟁 시대에 적극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면서 "센터가 도시농업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진기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목포=고규식기자 yousou@

독자와 함께 걸은 길 63년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지리지사	전화번호	시내지국	전화번호
광신	062944-0444	광천	966-8375
군산시	063467-2500	광남	722-9440
정읍시	063531-5544	광부	882-0175
		동광	264-2012
		동명	222-9054
		동부	225-5001
		문흥	267-4718
		백선	872-4688
		북광	675-5530
		상무	525-3781
		서광	377-2352
		송하	369-0683
		안산	676-6605
		양치	312-7732
		우봉	571-7658
		운천	306-7001
		월곡	522-7752
		중흥	512-8116
		진천	371-9818
		치평	961-9339
		치평	222-1986
		치평	224-6804
		치평	873-1600
		치평	973-2900
		치평	256-8212
		치평	376-6511
		치평	882-8112
		치평	959-1800
		치평	375-9682